

##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13호

발행일 : 2000.12.20

### [기증자이야기]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주 창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서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겐 매우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작은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속에 비수와 같이 꽂혀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골수이식이 후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며칠 전에 알지 못하는 한 형제에게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골수기증을 위한 수술을 위해 수술 하루 전날 간단히 짐을 챙겨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의 골수기증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의 일정을 정하시고 도와주셨던 한국골수은행협회의 새내기(?) 코디네이터 김은정씨는 훨씬 일찍 와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서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병실에서 홀로 밤을 맞이하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뜻밖의 물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한국골수은행협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감사패였습니다. 받아 보신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받는 손길의 그 민망함...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0월 0일 백혈병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타인에게 골수를 기증하셨기에 귀하의 숭고한 인류애를 영원히 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숭고한 인류애를 영원히 기리는? 그 감사패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 무슨 인류애가 있다고...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감사패를 손에 들고 있는 중에 제 기억속에 지난 일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6년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잠시 휴학중이었는데 국내에 골수기증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

교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전교생 골수기증 운동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학교 곳곳에는 ‘예수님은 보혈을, 우리는 골수를!’이라는 포스터가 잔뜩 붙어있고, 골수기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휴학중이던 저는 그냥 학교에 잠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서 골수기증을 위한 혈액을 채취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헌혈을 하라고 했으면 예전의 헌혈했을 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골수기증은 피를 조금만 뽑으면 된다고 하여서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혈액을 채취해도 골수 수혜자와 일치하는 조직 적합성 항원을 갖게 될 확률은 몇만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설마 내가 그 중의 한 사람이 되겠냐는 무책임한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골수기증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원래의 전공은 영어교육이었고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으로 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먼 이국땅에서 외로움과 슬픔, 연약해진 몸과 마음, 그리고 때로는 학대까지 견뎌가며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간단하지만 소중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3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들이 사는 집과 공장을 방문하고, 임금체불이나 건강문제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될 수만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슨 거창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이 실망스런 일을 할 때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생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수은행협회인데 저의 골수를 필요로 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으니 기꺼이 골수를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 놓고서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나의 골수와 맞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하

는 신기한 생각...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까지... 처음에는 수술이라는 말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골수기증에 동의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는 혹시라도 정밀검사에서 골수기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꼭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두달간에 걸쳐 건강검진과 두 번의 자가혈 채취에 이르기까지 골수협회의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밤, 감사패를 미리 열어보고서 무안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숭고한 인류애가 있습니까? 처음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쉽게 등록을 한 것도 맞을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일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서도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갈등하고 회의를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가까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제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수술은 예상보다 아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수술한 당일만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했을 뿐 다음날부터는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제가 너무 생생하게 잘 지내는 것이 도리어 주위분들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운동을 한 뒤에 느끼는 좀 빠근한 느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남들이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골수기증을 신청했다가 막상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골수기증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골수기증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골수기증의 절실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 골수를 받은 형제는 제 골수에 잘 적응하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그저 막연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어찌되었건 저와 ‘피를 나눈 형제’가 부디 건강을 되찾아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이런 고귀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제가 골수기증을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골수은행협회와 코디네이터 김은정씨, 그리고 격려해 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리며 골수 나눔을 통한 좋은 일들, 기쁜 소식이 더 많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 마음이 아니다. 중간 과정만이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시작도 내 의지가 아니고 끝도 내 의지가 아닌데 그 과정을 왜 인간이 책임져야 하나?’

지금까지도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인간은 많이 힘들어 하고 또 많이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골수기증을 신청한 것은 제가 골수기증에 대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군 병사시절 약간의 호기심과 또 다른 병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약간의 동조의식이 생겨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골수기증이냐 이식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단지 헌혈 비슷한 것으로 짐작만 했을 뿐이었죠.

그 후 전 하사관에 지원을 하였고 제가 병사시절 골수기증을 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사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 한국골수은행협회라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나가있던 파견지는 핸드폰의 안테나가 한 개 밖에 뜨지 않는 통화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분은 참으로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도대체 골수기증이 어떤 일이길래 이토록 열심히신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골수은행과의 통화와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 본 후 안심하고 골수기증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군인인 관계로 군부대에서 협조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가 헌혈 및 건강 검진을 마친 후 순조롭게 골수기증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제가 기증하게된 경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증에 동의하기까지는 여러 생각도 많고 결정하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막상 동의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심적 갈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골수기증 일정은 골수협회에서 알아서 척척 맞춰 주셨고, 각종 검사와 헌혈은 병원에 계시는 백의의 천사들이 알아서 해 주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청년이라는 말과 함께... 그 동안 전 그다지 힘든 일도,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골수기증을 위한 수술을 할 때는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의학의 발달 때문인지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이미 수술은 끝나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쓰기가 약간은 쑥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봐도 상당히 효율적인 일이 아닐까요? 전 골수기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골수를 빼내어도 혈액처럼 금방 다시 생성이 되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방 생성되는 골수라도 이식이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는 생명을 다시 이어주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골수기증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일이지요.

저의 골수를 받은 환자는 이식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건강해져서 자신이 힘들게 오른 언덕길 위에서 흘린 땀을 닦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내려다보며 미소짓고 있을거라 생각해봅니다.

제가 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그 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상에 빛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허승필

3~4년전 TV에서 심장병어린이돕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었지”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세상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생겨났다 금새 사라지는 유행처럼 이젠 모두들 그때의 그 마음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흐름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과 새로움을 주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마음마저 잊고 또 변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그때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너무도 순수하고 밝은 한 소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눈물을 닦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한 거라고는 단지 마음으로 동정한 것 뿐이었죠. 하지만 이기적인 세상을 탓하던 우리지만 바로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쾌해하며 즐기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골수기증에 대해 별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골수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마음이 아닌 제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골수기증 등록을 한 후 까맣게 잊고 있던 중 IMF 바람이 불어 가게가 어려워져 결국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해지는지 예전의 자만하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이 세상에 제가 설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미래가 막막하고 어떤 일을 해야할지 앞날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우 힘든 시기에 한국골수은행협회의 이영민 대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주었죠. 아직도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골수기증에 동의하였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협회 관계자분들은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따뜻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 직장을 그만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남을 위해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약 2달의 시간을 두고 혈액검사, 건강검진 등을 받고 2000년 2월 초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은 저에겐 잊을 수 없는 큰 추억과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데 더구나 그것이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축복이며 지난 시절의 올바르게 못했던 생활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몇 만분의 일이라는 일치 확률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권을 제게 부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더욱 사막같이 살아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병원에서는 너무도 자상하고 친절하신 협회 직원들의 배려로 잠시나마 세상의 왕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극진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으며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분들의 사랑! 보잘 것 없이 평범한 제가 받기엔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또한 너무도 좋으신 간병인 아주머니와 3일간의 밤을 꼬박 지세우면서 나눈 대화는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드러내지 않는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분에게서 너무도 편안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많은 걸 느끼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셨고 또 골수기증을 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에도 벅찬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 건 아주 작는데 제게 돌아온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퇴원 때 협회에서 주신 감사패는 저에게 뿌듯한 감동을 주었고 영원히 자랑스럽게 간직할 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 모두에게 골수기증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중에 알고 많이 화를 내셨죠. 무엇보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나갔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서도 제가 직장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만 퇴원할 때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드러내는 사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증 후 코디네이터 장형인씨께 골수기증에 대한 걸어다니는 홍보맨이 되어 드린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골수기증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골수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다시 있다면 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시고 또 제게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해 주신 한국골수은행협회에 감사 드립니다.

## [수혜자이야기]

아득한 절망 속에서 참된 희망을 알기까지

박시원

1997년 6월 23일 저는 급성 임파구성백혈병이라는 너무나도 기막힌 인정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앙병원 74병동에서의 눈물겨운 고통이 제 삶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형제가 없어 10차례의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지만 별다른 합병증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기에 11개월만에 1차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다음 날 성모병원으로부터 새로운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토록 제가 원했던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저는 기침이 멈추지 않는 감기에 걸려서 보통 사람들처럼 일상적으로 처음에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었고 그래도 낫질 않아서 회사에서 가까운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상시 건강에 관심이 많아 1년에 한번 연초에 종합검진을 받은 터라 의사 선생님도 별다른 검사 없이 간단한 검진과 더불어 감기 약을 먹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차도가 없어 인근 종합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몇 가지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백혈병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성덕 바우만이라는 사람과 골수 이식이 백혈병 치료의 적극적인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오히려 담담해진다고 하던가요?

‘난 이제 죽었구나’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혈액종양 전문의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입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어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른 종합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중앙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 즉시 시작한 항암치료... 항암제가 내 몸 속에 주입되자마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기침, 고열,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모두 감쪽같이 해결되었습니다.

담담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저도 환우들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이 병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내 병을 알리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저의 입원 사실을 알렸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와 어머니께서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며칠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기

도와 주님 앞에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는 가끔 나간 적은 있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골수 이식을 받길 원했고 그것이 그 순간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유전자 검사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서 형제간에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실망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제간에 맞는 유전자가 없었기에 한국골수은행협회에 신청을 해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기증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만분의 일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분의 일의 확률을 가진 형제간에 비해 가능성이 무척이나 희박했지만 3사람이나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항암치료도 잘 된 터라 골수 이식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싶었습니다. 기증자도 필요한 검사를 끝나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승인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덕 바우만의 골수 기증자였던 서한국씨의 골수 채취후의 후유증에 대한 어느 신문 기자의 경솔한 보도로 저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에게 독자에게 흥미 있는 기사로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의료 관련 기사에 관한 한 언제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던 타인 골수, 하지만 저는 일치하는 기증자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는 2명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추가로 등록된 기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실망할까봐 일이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은밀하게 추진을 해 나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기증자가 자신의 골수를 줄 날을 기대하며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 어느새 치료의 3분의 2이상이나 받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새로 등록하신 분 중에서 골수를 주시겠다는 기증자를 만나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완쾌를 위해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교회 식구들 모두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10명 가까운 기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문 기사의 영향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해졌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든 집착을 물리치고 저의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순간 확실한 기증자를 만나게 되었고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식을 결코 순조롭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 있었기에 자신의 일인 양 열심히 기도해 준 교우들이 있었기에, 또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해주신 서울 중앙병원의 이규형 선생님, 그리고 천사같은 74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 혈소판 수혈을 위해 담배와 음식까지 가려가며 혈소판을 기증해주신

과천 경비대의 대원님들, 마지막으로 흔쾌히 골수를 기증해주신 정말 고마우신 기증자분 등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이 분들의 귀한 도움이 있었기에 수술 후 힘들었던 많은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환자나 가족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과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환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골수 이식을 받든 아니면 항암치료를 받든 중요한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골수 기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하루 꺼져 가는 생명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모체가 되는 혈액의 일부를 그 꺼져 가는 생명에게 몇 십년의 삶을 연장해 주는 존엄한 일의 주역이 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형제를 위해 골수를 주는 일을 많이 지켜봤지만 후유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골수를 기증해 주신 이름도 모르는 기증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더 많은 골수 기증자가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경애

지난 여름 그렇게 무덥더니 지금은 어느새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절로 시간을 되돌리자면 97년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1997년 6월의 어느 날...

저는 예고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2시간 거리인데다 레슨에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제 몸에 조금씩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피로하고 잠이 많아지고, 잇몸도 붓고 급기야 사소한 부딪힘에도 큰 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잇몸 때문에 치과에 갔더니 진료를 한 후에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벌써 치과 의사 선생님의 전화가 온 뒤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곧 열릴 예술제 때문에 이틀을 미루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를 하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진료를 기다리던 그 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병명을 모른 채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을 응급실에서 보냈습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은 내가 지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껏 대학을 목표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력해 온 것이 6개월후면 끝나는

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며칠을 멍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7층으로 병실을 옮긴 후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체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섭고 놀라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그냥 머리를 밀어 버리자며 머리는 금방 다시 난다고 하시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만 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머리를 밀고 나서 치료에 전념했고 골수 이식을 위해 가족과 유전자 일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골수 은행에 기증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4차 다지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골수기증자 중에서 다행히 유전자형이 맞는 분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중 1분은 기증 거부의를 사를 밝히셨고 다행히 다른 한 분이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10월 2일에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았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제게 자신이 아파가면서까지 골수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분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97년 10월 2일...

병원으로 가서 무균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10월 0일 아침 10시에 도착하던 골수가 저희 부모님의 속을 태우며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도착을 해서 골수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팩 속의 노란색 액체에 저의 새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과 다행스러움에 눈물을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균실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던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무균실에서 나오면서 바깥공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왔다는 감사함과 뿌듯함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식편대 숙주반응에 시달려야 했고, 계속되는 혈소판 수혈과 가려움으로 시작된 숙주반응은 장이 헐어 하루에 20~30번씩 이르는 설사와 복통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옆에서 더 고생하셨던 분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힘겨운 짐을 지었으니까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생 끝의 낙이라고 98년 3월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며칠 전에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 흑이 났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 매일 낮아지던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내린 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퇴원후에도 열이 나서, 또 감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병원에 자주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식 후 1년, 2년 그리고 올해 10월로 3년이 된 지금 가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는 하지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작년에 동덕여대에 입학하여 열심히 학교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지내 오면서 감사해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치료해주신 이규형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골수은행 관계자 선생님들 모두 정말 저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게 삶을 나누어주신 기증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투병생활을 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혈병, 그거 별거 아니예요

정유한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한이라고 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았구요 진단 받은지 8개월만에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은 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드름이 하도 많이 나서 종합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제 몸이 정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땐 건강해서 제가 백혈병에 걸리리란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병이 보통 병이 아닐거란 생각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까짓게 걸려봐야 에이즈보다 더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1인실로 옮겨도 부모님께서서는 무슨 병인지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제 병명을 들었을 땐 아~ 성덕바우만, 그 사람도 거의 완치가 되어서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보단 별 것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엔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골수 검사는 생각보단 아프지 않았습니다. 뭐 뼈에 굵은 주사바늘을 넣어서 한다면데 마취하니까 조금 아팠습니다. 사랑니 뽑는 정도의 공포에 이를 악물면 견딜 수 있을만한 고통, 저는 제가 골수 검사를 받는 것보다 다른 환자들이 골수 검사 하는 것을 볼 때 더 무서웠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아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하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빨리 기증자를 찾았고 그 분도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성기 때가 아닌 시간이 많이 지나 급성기때 하게 되면 이식후 예후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고마우신 기증자 덕분에 만성기 때 되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식을 하게 되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골수 이식은 서울에서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부산보다 서울에서 하길 원하셔서 서울에 있

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어색했는데 부산 사투리만 듣다가 서울 말씨를 들으니  
까 정말 상냥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른 보호자들까지요. 이식할 때는 1인 무  
균실에서 있었는데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을 때 먹는 것이  
어려운 것과 토하는 것 빼고는 열이 39도를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일 회진을 돌 때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으시면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미안해서인지 37~38도의 미열이 있는 정도였죠. 이식 전 너무 건  
강해서인지 아무 탈 없이 이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환자는 잘 먹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이식 전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고 3일 동안은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에 의사 선생님이 머  
물러 계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백혈구 수치가 오르지 않았습니. 아마 10개의 무균실 환자들 중에서 제일 늦게  
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엔 나중에 오르겠지 그러다가 저 혼자 백혈구 수치가 오르지  
않으니까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지 3일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백혈구 수치가 쪽쪽 올랐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절차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신대  
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음식을 다 익혀 먹어야 했지만  
먹고 싶던 빨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떡볶이 맛이 나지 않고 쓴 맛이 났  
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기분... 그 외에는 아무 이상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학년 2학기에 복학해서 지금은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다보면 금방은 아니지만 깨끗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혈병이 난치병이라고는 하지만 별 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골수를 주신 기증자분께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지글 -

김형숙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에게서 골수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김형숙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 저는 당신을 유꼬라 혼자 이름지었습니다.

유꼬! 당신은 참으로 제게 고마우신 존재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서 안과에 갔는데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때 안과 선생님이 저의 눈을 보시더니 이상하게도 빨리 내과에 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당시 너무나 건강했고 운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  
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적극적인 치료방법 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아 이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를 들

어갔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거부반응이 와서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울대학병원의 주치의셨던 박선양 선생님께서 골수 은행에 의뢰를 해 보자고 하셔서 의뢰를 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병을 알고 약 8개월만에 국내에는 맞는 기증자가 없고 일본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2000년 4월 0일에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균실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다가도 유교 당신을 생각하면 올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적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골수를 제게 주신 당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골수가 히크만을 통해 제 몸으로 들어온 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게 생명을 다시 주시려는 뜻인지 골수가 들어온 다음 날 히크만이 몸에서 빠졌습니다. 만일 골수가 들어오는 도중에 빠졌다면 아마도 지금의 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식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전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제 남편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자식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때 남편의 강한 의지력이 아니었으면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무균실에 있을 때 저를 살려달라고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제 남편... 전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유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싶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어떻게 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나마 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날을 기대해보며 그럼 건강하세요.

김형숙 올림

## [외부원고]

師 道

신효근 교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君師父一體 ” 또는 “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런 말들을 한다. 이제는 지나간 옛이야기로,

군주시대의 바탕이 되었던 유교사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만 실제로 옛사람들은 스승에 대해 존경과 사랑을 위와 같은 말로써 표하였고 또한 선생님들은 師道를 지킴으로써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스승에게 꿀밤을 맞았다고 경찰에 전화하여 스승을 신고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침보다는 돈에 앞서는 스승들 또한 있는 작태이다.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지만 제자는 없다는 말처럼 스승은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하고 師道도 실종된 지 오래되었다고 얘기한다.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보여지는 스승과 제자사이의 연결고리는 단지 학점을 따기 위해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보는 것과 학점을 주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것 같다.

대학에 온지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師道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요즘 학생들의 세대에 대해 이미 세대차 내지는 교육의 부재 등으로 치부해 버리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오랜 스승이신 일본 동경치과대학의 명예교수 다카하시 쇼지로 교수님이 생각나서이다.

치과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느끼기에는 선생을 생각하기를 지금도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 학생들에게 많은 정을 주기가 어렵고 또 학생들도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주소인 것 같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까?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꾸지람을 받지 않고 자란 요즘 신세대들의 여러 면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얘기를 바꾸어서 16년 전에 일본 동경치대에 유학했을 때 첫 한국인 제자인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주신 다카하시 교수님께서 은퇴한 뒤 76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경 도립 오오쓰카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계시며 또 저서활동과 학회 발표를 게을리 하지 않는 등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계셔서 저 또한 그 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출퇴근 시 전차 속에서도 새로운 저널을 보시며 환자에게 최상의 그리고 최신의 진료를 해야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강조하시는 노교수님은 항상 정감어린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지만 연구를 게을리 하거나 환자를 편법으로 보려할 때에는 준엄한 불호령이 내려지기 일쑤이다. 또한 교수님은 구강악안면외과학은 ‘Art& Science’ 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umanity’라고 강조하시면서 인술을 베푸는 의사는 먼저 인간부터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다카하시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글이 있는데, 그 첫 글은 11년 전 은퇴 기념식 때 ‘鬼手佛心’이라는 글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한 구강악안면부위의 큰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로서 귀신과 같은 솜씨로 수술을 하되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즉 환자를 위한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고, 항상 부처님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두 번째는 그 뒤로 평생 업적을 두꺼운 책으로 담아 내시면서 ‘慈心妙手’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이 글은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어서 그 뜻이 너무 좋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지난 10월 일본에서 학회가 있어 동경에서 뵈었을 때 ‘智鏡德敬’이라는 글을

주시면서 모름지기 사람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덕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시간이 갈수록 덕이 더욱 비중이 큰 것을 느끼신 것 같은 노교수님의 인자한 얼굴에서 진정한 師道를 느낄 수 있었다.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글은 나에게 있어서는 큰 선생님의 가르침이며 또한 나의 제자들에게도 물려줄 좌우명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자기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제자들을 향한 모범과 채찍질이 필요하고, 부모,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師道の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카하시 교수님과 같이 학문에 정진하면서도 덕을 실행하고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는 한 師道の 정립도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

## 난 지금 퇴계로로 간다

방송작가 이창현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용맹이 때문...>

1박 2일 동안 온 식구가 소백산 등산을 마치고 왔을 때 도둑이 들어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마누라 속옷까지 헤쳐놓고 간 것도 분통이 터졌지만 용맹이 때문에 더 부아가 났다.

용맹이는 내가 아끼는 진돗개다. 등산가면서 집안 잘 지키라고 목줄까지 풀어놨지만 결과는 그 지경이었다. 도둑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안 도대체 용맹이 놨은 뭘 했을까? 물어뜯지는 못할 망정 목청이 터져라 짖기만 했어도 옆집에서 들여다 봤을 텐데... 찾길에 난 용맹이를 묶어 놓고 사정없이 매질을 했다. 그제서야 옆집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렸다. 말리다 지친 마누라가 내 등짝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똥개 갖구 왜 그래! 동네 창피하게!”

“뭐? 똥개!???”

아! 용맹이를 똥개라고 하다니... 그건 내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낸 마누라에게 일갈했다.

“용맹이가 똥개면 너두 똥개야! 문단속 잘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아이구! 내가 똥개면 당신두 똥개야! 뭐 잘났다구 이러는거야 증마알!”

순자는 용순이를 낳고 용순이는 용맹이를 낳고... 지난 7년 동안 우리집에서 기른 진돗개의 족보를 캐면 대략 이렇다. 그러나 족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용맹이가 진돗개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7년 전 장모님이 충청도에서 태어난지 두달도 채 안 된 암개 한 마리를 얻어오셨다. 예미는 진돗개인데 애비는 잘 모른다고 했다. 별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성화를 부리는 통에 별 수 없었다. 대신 강아지 이름을 순자라고 지었다. 그 당시엔 순자라는 인물

이 종종 화제거리였다. 탐탁치 않게 받아들인 순자였지만 커가면서 귀티가 나기 시작했다. 척 보면 정말 진돗개 같았다. 새벽 산책길에 끌고 나가면 약수터에서 체조하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감탄할 정도였다. 앉어 하면 앉고 눕어 하면 눕고... 그런데 순자에게는 한가지 흠이 있었다. 먹지마 해도 먹는다는 것. 쓰레기통까지 뒤져 음식 찌꺼기를 먹어대는데는 속수 무책이었다. 아무리 야단치며 훈련시켜도 막무가내였다. 아! 순자가 진돗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날 순자가 처녀가 됐을 때, 열린 대문으로 몰래 들어온 늘씬한 백구 한 마리가 순자의 등을 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은밀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쾌재를 불렀다. 그 백구는 우리 동네에서 개박사로 유명한 통장네 진돗개였다. 혈통이 우수해서 씨 한번 뿌려 주는데도 거금을 받는다는 바로 그 진돗개였다. 순자에게서 이루지 못한 꿈을 순자 자손에게서 이루자,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마침내 누런 순자가 희디 흰 용순이를 낳고, 순이가 젖을 땔 쫓아서 나는 미련없이 순자를 개장수에게 넘겼다. 에미의 못난 습성이 자식에게 전염될까 두려웠다. 나는 용순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고 용순이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방위 통지서를 가지고 온 통장도 용순이를 보고 어디서 사왔냐고 관심을 보였다. 난 그저 웃었다.

‘두고봐라. 니네 백구만 못하겠나...’

그러나 용순이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점점 목소리가 이상해졌다. 장모님은 무슨 개소리가 약장수 같냐고 내 속을 긁었다. 통장네 집을 기웃거리며 용순 애비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우렁차고 위엄이 있었다. 목소리는 유전도 안되나? 속이 뒤집혔지만 다시 용순이의 후손을 기다리기로 했다. 마침내 용순이가 처녀가 됐을 때 나는 대문을 열어놓고 다시 백구를 기다렸다. 동네의 허다한 발바리들이 용순이를 탐냈지만 키가 작아서 어림없었다. 그리고 그 어느날 용순이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온 백구를 만나 혈통수정에 들어갔다.

용맹이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2대에 걸친 혈통수정을 통해 용맹이는 순자나 용순이를 훌륭하게 극복했다. 일찌감치 영재교육을 시키기 위해 마누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훈련소에 맡기기도 했다. 조련사는 용맹이 졸업식 날 목줄을 내게 넘기며 아주 영리한 놈이라고 칭찬했다. 통장이 뜬금없이 찾아와 족보 좀 보자고 하는 것만 제외하면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우리의 용맹이. 동네에서 자랑할 거라곤 하나 없던 우리집이 어느새 진돗개 집이라고 소문나기 시작했다. 용맹이는 우리집 자랑이었고 내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믿고 믿었던 용맹이의 정체가 도둑놈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똥개로 판정되었고 핏김에 꺼낸 논쟁 때문에 마누라도 나도 똥개가 되어 버렸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내가 왜 그토록 용맹이를 진돗개로 만들려고 했는지, 내가 왜 마누라 한 마디에 발끈했는지는 차마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나에겐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픈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고등학교 시절 멍게란 놈이 지어준 나의 별명... ‘똥개’

아! 그 지긋지긋한 똥개가 교복 벗은 지 30년이 다 되도록 날 따라다니고 있었다니!

난 지금 마누라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퇴계로로 간다.

족보 있는 진돗개 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일 갤러웨이

어린 채드는 부끄럼 많고 조용한 아이였다. 어느 날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발렌타인 데이에 자기 반 학생들 모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채드가 그 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아들 채드가 항상 맨 끝에서 외톨이로 걸어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웃고 떠들며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 나왔다. 하지만 채드는 언제나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는 종이와 풀과 크래용을 등을 사왔다. 그 후 3주간에 걸쳐 채드는 밤이면 밤마다 서른 다섯명의 급우들에게 줄 발렌타인 선물을 공들여 만들었다. 선물 꾸러미들을 가방에 넣고 채드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엄마는 채드를 위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구워 따뜻한 우유와 함께 내놔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이가 실망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우유와 과자가 어찌면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약간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다른 학생들로부터는 별로 많은 발렌타인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단 한 개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엄마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날 오후, 엄마는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과자를 굽고 우유를 식탁 위에 차려 놓았다. 바깥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역시 아이들이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들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채드는 맨 뒤에서 외톨이로 오고 있었다. 하지만 채드는 다른 때보다 약간 빨리 걷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이가 빈 손으로 오고 있는 걸 엄마는 눈치챘다.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엄마는 눈물을 감추느라 애를 썼다.

“엄마가 너에게 주려고 과자와 우유를 준비했단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아이는 빛나는 얼굴로 엄마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자 아이가 덧붙였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구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가져간 선물 숫자가 딱 맞았어요!”